

---

## 대중이 사용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도구

이효연 · 한국방송공사(KBS) 기자

---

‘자장면’이라고 쓰고 ‘짜장면’이라고 읽어 왔다. 오랜 시간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던 매력적인 음식 ‘짜장면’. 우리는 그 맛깔스러운 음식의 이름을 애써 ‘자장면’이라고 불러야만 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심정이었을까. 2011년 8월의 마지막 날,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부를 수 있게 된 날, 대중은 환호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짜장면’이 올랐고 트위터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짜장면’은 단연 최고의 이야기거리였다. 직장인들은 ‘짜장면’이 제 이름을 찾은 날을 기념하며 그날의 점심으로 기꺼이 ‘짜장면’을 택했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사실을 KBS 9시 뉴스를 통해 보도했던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다음 날 KBS FM을 통해 방송된 ‘변기수의 미스터 라디오’의 ‘짜장면’ 특집이었다. 어색한 ‘자장면’이 아닌 맛깔난 ‘짜장면’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부를 수 있게 된 날, 개그맨 출신 디제이(DJ) 변기수 씨는 특유의 넘치는 끼로 ‘짜~장면’을 작심한 듯 외쳐 댔다. 청취자들은 자신의 추억에 얽힌 ‘짜장면’ 이야기를 쏟아 냈고 심지어 KBS 라디오 스튜디오로 짜장면을 배달해 준 청취자까지 있어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이런 열렬한 청취자들의 반응을 통해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닌 ‘국민 짜장면’

의 반열에 올라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KBS '뉴스 9'의 민경욱 앵커는 2011년 8월 31일,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장을 볶은 소스에 비벼 낸 국수를 처음엔 볶을 '작(炸)' 자에 된장 '장(醬)' 자를 써서 '작장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게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는 마음 놓고 둘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이 짧은 앵커 멘트를 통해 '짜장면'이라는 음식 이름의 기원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작장면'이라는 음식을 대중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짜장면'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단어는 대상의 느낌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가장 발음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방송 등 대중 매체를 통해 바로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필자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쌍얼'과 '성대묘사'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을 말하는 '쌍얼'의 표준어는 '민낯',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짐승 등을 흉내 낼 때 자주 사용하는 '성대묘사'는 '성대모사'의 잘못된 발음임을 지적하는 상황을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봐 왔고, 많이 시정됐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대중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법은 바로잡아 주면 고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자장면'은 달랐다. 아무리 공식 석상에서 '자장면'이라 발음하고 대중의 잘못된 언어생활을 바로잡아 주는 TV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지적해도 사람들이 '자장면'을 '짜장면'이라고 불렀던 것은 '짜장면'이 그 음식의 느낌과 맛을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발음하기 쉽게 전하는 단어로 이미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 '짜장면'과 함께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추가했다. '짜장면'이 표준어 대접을 받게 된 날, 함께 표준어 대열에 이름

을 올린 단어는 ‘먹거리’와 ‘복숭아뼈’,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의 원래 표준어였던 ‘먹을거리’와 ‘복사뼈’, ‘간질이다’, ‘남우세스럽다’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짜장면’을 비롯해 39가지 단어를 표준어로 추가 인정한 국립국어원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지금의 표준어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88년이었는데, 대중의 언어 사용 변화상을 적극 반영해 표준어를 추가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어 추가 결정에 앞서 국립국어원은 최근 2~3년 동안 대중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법 200여 가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성인 남녀가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조사를 펼쳤다. 그 가운데 39개 단어가 표준어 대접을 받는 영광을 얻은 셈이다.

대중이 사용하는 말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도구와도 같아서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방법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가 잊히기도 하고 또 변화한다. 언어의 이런 속성을 이해하고 언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 했던 노력을 환영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중들도 그래서 ‘짜장면’이 제 이름을 찾았던 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게 아닌가 싶다. 마치 생물처럼 환경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언어의 변화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번과 같이 표준어로 적극 반영하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그것이 한 시대의 언어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한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